第252回國會 (臨時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2月24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주요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o 북한 핵개발 관련 상황 보고
      o 개성공단사업 추진상황 보고
      o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상황 보고

審査된案件

1. 주요현안보고 ····· 1
   가. 통일부 소관
      o 북한 핵개발 관련 상황 보고
      o 개성공단사업 추진상황 보고
      o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상황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배기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창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에 의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입법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신문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소위원회별 주제를 안건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시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간사와의 협의로 최근의 남북 관계 현안 사항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핵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을 병행 추진해 왔던 만큼, 최근의 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대처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이 현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o 북한 핵개발 관련 상황 보고

o 개성공단사업 추진상황 보고

o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상황 보고

(10시09분)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위에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상황이 좀 호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아래 유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와 유관국들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고, 북한도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상황 전개 추이는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상황 관리의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협 사업이나 민간 교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경주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상황 변화나 남북 관계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변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된 홍양호 실장입니다.

통일정책실장을 맡게 된 이관세 실장입니다.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맡게 된 황하수 국장입니다.

정보분석국장으로 부임한 김남준 국장입니다.

교류협력국장을 맡게 된 김천식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 개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고, 개성공단사업 추진상황과 금강산관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 연기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없애 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한 이상 핵 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적 입장과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주요 계기 시마다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언급한 핵 보유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4차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협상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6자회담 참가 명분과 재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핵 보유 거론을 통해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유리한 협상 여건 조성을 노렸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성명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불이익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북핵 불용의 원칙과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NSC 상임위원회, 또 정부의 입장 발표와 안보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대북 유감 표명과 즉각적인 6자회담 참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중 간, 한러·한일 외교장관 간의 전화 협의 그리고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 접촉을 병행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고 미국과 일본 간에 외무·국방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접견 시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 회담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 불변, 6자회담 성공 노력 그리고 6자회담 조건 성숙 시 회담에 나가겠다,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등이었습니다.

평가와 대책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북핵 문제가 다소의 우여곡절을 거칠 것이지만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은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회담 복귀 쪽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마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 간의 4차 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들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기조아래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유관국들과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국 간 양자 접촉 또는 다자 접촉 등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 개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최근의 상황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은 기존에 예정된 사업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비료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여론,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 행사는 합의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국 간 대화는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에도 북측 인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인원, 차량도 이전처럼 통행하는 등 공단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현재 남측 400여 명, 북측 1700여 명이 참가하여 2100여 명의 남북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금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축,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5개 입주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은 이미 준공되어서 가동되고 있고, 9개 기업은 현재 공장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력·통신 합의서가 체결돼 현재 우리 측 구간 공사는 완공됐고 북측 구간 시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단지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상하수도 등 단지 내 기반시설은 작년 8월에 착공해서 약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설계 완료단계이고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범단지는 예정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5개 기업을 모두 가동해서, 이렇게 되면 북측 근로자 약 4000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기와 통신은 3월 중에 공급하고 시범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를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단지 개발과 분양에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2/4분기 중에는 본단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전력 10만㎾, 통신 2000회선, 용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을 2006년 말까지 건설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단지 분양은 기반시설 공사의 진도와 북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반기에 1차 5만 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물자와 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서 아파트형 공장, 협동화 단지 등 다양한 형

태의 분양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보험·의료·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협력기금의 대출과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강산관광 사업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재작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정례화되면서 활성화 추세입니다. 당일관광, 1박2일·2박3일 관광 등 상품 다양화와 금강산호텔 개관, 골프장과 가족호텔 건립 추진 등 시설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98년 11월 관광 개시 이후 총 관광인원은 2005년 1월 말 기준으로 87만 명입니다.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구 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생과 통일교육 담당교사 2만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월 21일 현재 1만 7900명의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자 현대아산은 세계관광기구(WTO), 그리고 국내 전문기관 등과 협조해 금강산특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2002년 11월 25일에 마련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9개 하위 규정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정이 재작년 9월에 제정됨으로써 금강산 지역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입니다.

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가용 관광 실시, 골프장·가족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활발한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금강산특구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해선 육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금년 말까지 철도연결 완료 등 육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각 위원님들께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장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좋은 답변도 주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께 현재의 상황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바쁘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관과 두 분께 최근 상황에 대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오늘 특별위원회에 맨 먼저 출석하신 최성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중차대한 시점에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열어 주셨습니다. 세간의 많은 관심이 북한의 핵보유 실태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 민족의 대단히 중차대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원장님께서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적절한 시점에 열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북한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병행 발전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중국에 도착했고 오늘 보고에서 간단한 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김정일 면담결과를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 종합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2월 21일 왕자루이 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참가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전해 들었고 또 중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핵심은 6자회담의 틀은 여전히 유용하다는 데 중국과 북한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북은 6자회담에 참여할 조건과 명분이 충족되면 회담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왕자루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유관국들이 함께 노력해서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나가겠다고 한 대목입니다. 즉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을 촉구한 셈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이 무기한 참가 중단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참가조건 쪽으로 좀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남북 간 대화채널의 복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화채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우리 정부 측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현재 민화협 또는 조평통, 민경련 이러한 남북 간의 정치·경제적인 대화채널이 있을 것이고 유엔 북한대표부도 있고 판문점 연락관, 개성공단 내의 사업총국 등 다양한 남북 간의 공식·비공식 채널이 있는데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물론 모든 부분들을 공개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 간에는 다양한 접촉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 부문에서의 여러 접촉 면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의 직통전화라든지 군사 실무자 간의 핫라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장관급회담이 무기 연기되고 있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역시 지체되고 있는 등 당국 간의 협의채널, 당국 간의 회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무익한, 또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김윤규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주영 명예회장 묘소에 다녀와서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는 감회를 피력하셨는데 지금 북한 핵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내의 상황이 어떤지, 북한 핵 위기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또 국제적인 신인도가 하락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되는 등 안정적인 핵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핵과 경협을 분리하는 데서 나온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 문제 발생 이후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또 남북 관계에 누구보다 깊숙이 관여했던 민간 참여자로서 어떻게 하면 남북 경협이 핵 위기 와중에서도 발전될 수 있는지 소회와 정책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정경 분리 원칙이다, 정치·군사적인 것은 배제하고 경제가 앞장서서 남북 경협을 추진해 오는 것으로 추진해 와서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북측과 핵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핵 때문에 우리 사업이 부진해질 것이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측의 의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핵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의지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김동근 이사장도 나와 계시지만 개성은 현재 사업 수행이 그동안 계획된 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또 북측에서도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든지 추진계획을 협의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사업은 핵 문제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핵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성 위원 짧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의 준공식 연기가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핵 상황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원 자체에서 준공식을 하는 데 따른 내부적인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의 준공식 연기 이유가 북한 핵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곁들여서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신원이 이번에 서둘러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24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 준비 관계가 좀 덜 되었습니다. 북측 사람들은 소위 전시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패션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가는 모델 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차질이 좀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하자는 것으로 내부에서 해 가지고 연기가 된 것이고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되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개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분계선 통과 문제입니다.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가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야 되고…… 저희가 빨리빨리 업무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바쁜 시간에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에서 통행 문제를 수시로 언제든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100만 평에 준해서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800개, 2000여 개 업체들이 다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2000만 평의 토지이용증을 받고 개발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2000만 평 전체에 대한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이왕 시작한 것은 핵 문제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북한의 6자회담 거부와 핵 보유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장관께서도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3대 경협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3대 경협 사업의 분리원칙은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군사 부분과 교류·협력 부분을 분리해서 한쪽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한쪽으로는 교류·협력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대북 사업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속초·고성·양양은 3대 경협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관광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고성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북고성에 위치한 금강산특구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강산 관광 등 일부 경협 사업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설악권의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지원 반대를 위해서 상경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국내 관광업계는 전국적으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남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 오물처리비 등으로 일정액을 부과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등, 하여튼 예상치 못했던 남북 경협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앞으로 교류·협력이 증가할수록 이런 국내의 반대 목소리와 부작용의 강도도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악화가 겹치면서 이 접경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것 자체가 남남 갈등으로 발전되어서 우리가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더 심화되기 전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에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과 강원도가 나서서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하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런 저런 것을 하고 있으나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정부청사에서 설악산, 경주, 수안보 등 전국에 있는 관광단체 대표자들과 통일부 주무 과장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혹시 이 면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어저께 이 면담이 있었고 면담 이후로 일단은 시위 계획이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강산을 개발할 때 김대중 정부 당시로부터 금강·설악 연계 개발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빌 공자의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WTO(세계관광기구)의 금강산 지역 개발계획서에서도 금강산지구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경협 중에 특히 금강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성군, 분단된 남고성 지역에 남아 있는 금강산 지역과 설악권과의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개성공단 사업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설악·금강 연계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정확하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선 금강산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악권의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씻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교육,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현장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 주기 위한 통일교육 차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 고등학생 200만 명 가운데 2만 명, 1%입니다.

거기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정의 어려운 학생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신 선조들의 뿌리가 이북에 있는 그런 집안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고등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막 첫 해, 한 해 시작한 프로그램을 설악권에 있는 관광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관광지원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를 비난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악산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금강산 관광도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설악권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관광으로 묶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문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중고생 금강산 체험교육에 대해서 보좌관들을 금강산에 보내서 중고생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조사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통일교육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보냈었는데 전체적으로 현대아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도 써 주었고 잠자리도 좋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이런 부분에서 사고 없이 진행을 해 준 현대아산에도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점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박 3일 관광객들의 프로그램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통일교육이라는 형식의 강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별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극단적인 예겠지만—아버지가 선생님이라서, 학생회장이라서 선발되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가위바위보해서 왔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정말로 실질적으로 통일교육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지 그냥 북한 땅을 한번 밟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은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우리 문화유적 같은 것을 동시 탐방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국토의 일체감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자꾸 진행되어 나가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규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예.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셔야 될 분이 열두 분입니다. 진행상 일단 7분을 정확하게 자르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을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고맙습니다. 오늘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를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과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과 남한 양 당사자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독일 기업인들을 만났더니 평양에 독일이 직접 투자도 시도하고—아시다시피 독일은 평양에도 대사를 갖고 있습니다—직접 투자를 위한 심포지엄도 했고 또 저희 쪽과 얘기하기를 개성공단이나 이런 남북 경협 사업에도 만약에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평양에 투자한 기업들이 혹시 개성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기업들을 개성이나 또는 그밖에 남북 경협 사업에 확대해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하는 문제와 아울러 그러면 중국은 남북 경협 및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진짜 본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1단계 100만 평 본단지에 외국기업 전용 공단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만 8000평, 현재 1단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질의의 맥락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역시 외국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오픈되어 있는 것이네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우선 1단계부터……

○이은영 위원 그 점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 점을 앞으로 좀더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예를 들면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물론 일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감정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제가 지난 12월 중국에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당국자들에게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하고 세일즈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이해를 표시했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지지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해 근교에 있는 쑤저우공단을 방문해서 개성공단과 비교하는 시찰 기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되게 되면 물론 중국에 진출한 2만 개가 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시 개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규모나 진척 속도로 보아서 중국이 개성공단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은영 위원 조금 이따가 김동근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최근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서 우리 국내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추후에 서면으로……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재로서는 북한이 특별히 반응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 위원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기선 그러면 김동근 이사장이 답변을 잠깐 하시도록 하시지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사장 김동근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는 현재 개성공업지구법상 개인 또는 법인, 그것이 국내인이든 해외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투자를 원할 때의 조치는 아직도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는 지난번 저희들이 중국 소

주, 심천을 방문해서 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동반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예를 들면 독일 기업이 북측과 협의하에 개성공단으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사장 김동근 일단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오는 법인은 개성공업지구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분양할 때 그때 분양을 받아야 되고 분양받고 나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위원회의 기업 창설 허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이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남북 관계 현안보고에서 '이번 성명은 북한이 주요 계기 시마다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언급한 핵 보유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장관께서는 국회 답변에서도 "핵 보유 주장이다, 선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주장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북한이 발표해야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심은 '주장이냐, 선언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 하는 평가인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외무성 성명을 '핵 보유 선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핵 보유국, 영어로 하면 Nuclear States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북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유지해 온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즉 전략적 해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평가와 판단을 북한 외무성의 성명 하나로 바꾸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박찬숙 위원 사실상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데 전략적 해결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15년 전부터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의심해 왔지만 십몇 년째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지금까지 그런 북한 핵에 관한 불확실성이 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박찬숙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고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 아까 최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북한이 조건과 명분이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은 지금까지하고 달리 어떤 것이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명분은 어떤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까? 그동안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다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북측의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시 2기 행정부가 나름대로 절제하고 북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마는 북으로서는 2기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폭정의 전진기지'라고 언급한 것이 북한체제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협상에 나가 보아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북한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자루이 부장을 통해서도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 변화를 어떤 형식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으로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북을 압박하기 위한, 또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유인책으로서의 북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번 주 토요일에 한·미·일 3자 협의가 있고 이미 한미 간, 한중 간, 미일 간 양자 접촉들이 있고 이러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만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북을 6자회담에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북이 자신을 빼놓은 5자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숙 위원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교훈으로 그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 관점…… 자식을 키우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너무 달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달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말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기본적으로 91년, 92년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그 위반의 폭을 극대화시켰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남북한이 뉴욕에서 만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회에서 질의도 하셨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정부 당국자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확인하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은 '그랬었다'고 해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특별한 내용과 관계 없이, 그러나 항상 남북 간 접촉에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므로 그 내용을 여쭈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같은 정부 안에서 정부의 입장이 두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다만 설명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의 차이가 달리 전달될 수는 있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서 독대하셔서 지침을 받았거나 특별히 얘기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고 지침도 받았고 계속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 지침은 어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이 대개 대통령께 보고된 내용이고 대통령의 지침에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찬숙 위원 2월 10일 선언 당시에는 노 대통령의 반응이 없어서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식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통령께서는 당일부터 리얼타임으로 정부의 대책에 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고 또 실시간으로 지침도 주고 계시고 가장 최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숙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한이 한미 간에 또는 중국 간에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치된 인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5개국이 강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찬숙 위원 언제까지라는 것보다 가능한 한 빠른……

○통일부장관 정동영 시한을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무성 성명이 이제 보름 지났는데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박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粲 委員 류근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장관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현안보고 4쪽에 보면 '시범단지 개발'에 '지난해 12월 전력·통신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북측 구간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력 관계 설명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기하고 통신입니다.

○柳根粲 委員 작년에 우리 특위에서 통신 문제에 대해 사실상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직접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1분에 3달러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국제전화를 통해서 서울과 개성 간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통신 주권 문제 때문에, 통신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주권 다툼 때문에 통신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합의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합의 내용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粲 委員 통신 문제가 지난 특위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통신 주권을 주장해서 협의가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우리 KT하고 북측이 협력 방식으로 서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타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요금이라든지 향후 정산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서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북측 지역 구간에 대한 통신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공동 운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시설 설치라든가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KT하고 북측 통신회사가 서로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는 주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양측이 참여한다 그 얘기입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개성 시내에 있는 개성 전화국은 북측이 운영하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통신센터는 KT가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협력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렇게 될 경우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신될 수 있는 게 담보되는 거지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기본적으로는 당국 간 체결된 통신 합의서에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통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柳根粲 委員 알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보고 이후에 새로운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북한 외무성 발표 이후 이른바 3대 경협,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사업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협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또 북한의 대남 의존성 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협상 자산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 사업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측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지난 2월 10일에 발표했던 내용을 통보했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까? 북한 당국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2월 10일에 성명을 낸 내용과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 왔거나 우리가 받은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없습니다.

○柳根粲 委員 그렇지요?

북한으로부터 지금 어떤 메시지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또 예정대로 추진을 하겠다, 추가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한 대로 이런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문제 또 인도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우리 정부가 일관성이나 인도적이라는 부분에 대북 경협정책이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전략인데 미리 우리의 전략을 다 꺼내 쓰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기조를 유지해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처가 이제 없어야 하고 그래서 6자회담 재개 등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문제의 해결과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기를 정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계속 어렵게 함으로써 제 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또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지장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로서는 북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찬동한다' 하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경협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의 협조·협력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根粲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7분 썼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류근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어떻게 보면 경협과 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또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애매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종 목표이면서 조만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실현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 체제 보장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들어 주는 대신에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이 없다는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주승용 위원 지금 핵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지금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인 것이지요.

○주승용 위원 그렇지요? 저는 최근의 북한 핵 보유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응이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반응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평상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답답한 입장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린애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그것이 사실이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남북 간의 마지노선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될 그런 선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협력과 핵 문제는 별개라고 처음에 전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참여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어 옴에 있어

서 견지해 온 세 가지 원칙,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핵 불용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평화적 해법이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배제될 수 없다,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세 가지 입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첫 번째로는 국내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본질적 측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것은 물론 6자회담의 틀이라는 유용한 틀이 마련되고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 협상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밀고 당기는 협상의 과정 속에서 2월 10일 외무성 성명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가면서 북한 핵 문제를 6자 틀 속에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 원칙은 사실 참여정부가 주도해서 확립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LA 연설에서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몸을 던져서 혈로를 여는, 그래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평화적 해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전쟁이 불가하다는, 압박과 봉쇄가 효과가 없다는, 그래서 평화적 해법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기를 촉구하는 이러한 정상 외교와 참여정부의 노력이 이제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울수록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풀어갈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도 지난 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한국 정부와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승용 위원 원칙을 표명하는데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입장을 북한이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북한이 지금 '조건이 성숙되면 6자회담에 참석하겠다'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조건 성숙이라는 것은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폭정의 전초기지'라든지 이런 어떤 강경성 발언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회담에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핵 사찰을 검증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 사찰 검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아니지요. 협상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핵 문제 해결 이후에 다시 또 미사일 문제, 또 미사일 문제 이후에 다시 생화학 문제, 또 인권 문제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 오면 결국 체제 생존이 어렵지 않겠느냐? 즉 북을 협상 상대로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전제 위에 6자회담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주승용 위원 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지 미국은 지금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이고, 또 적대정책을 포기하면서 체제를 인정해 줄 것이고 북한은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북한이 핵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검증이 되어 버린다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흥정할 것이 없어지는 결과가 돼서 북한으로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서로 양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고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이런 확신 아래 앞으로도 차분하게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주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김석준입니다.

이미 북한은 서너 차례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벼랑 끝까지 가고 항상 최후의 순간에 자기들이 얻을 것은 다 얻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약속을 파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에 서로 이익이 됐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북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까지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매우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단 국제사회든 우리나라든 북이든 다 6자회담으로 푸느냐, 아니면…… 북은 미북 양자로 풀자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일단 6자로 풀어야 되는 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경분리에 의해서 민족 공영으로 가자라고 하고 그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6자가 아니고 양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으로 갔을 때 나머지 5자, 6자는 현재 정경분리가 아니라 지금 정경 연계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우리는 남북 간에 정경분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중국이나 이들은 다 외교·군사·경제를 하나의 묶음으로, 즉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한·미·일 심지어 중국까지도 서로 협의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가 있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우리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준수한다고 그러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같이 있을 경우에 이미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맹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6자회담에서 주도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근본적으로 핵 문제는 국제정치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따라서 한반도의 특수성 특히 우리가 처한 입지의 특수성, 미국이나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한국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의 한반도 특수성에 따라서 남북 간에는……

○김석준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민족 공조 혹은 민족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교류를 다해 왔는데, 이것을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해왔는데 자칫 잘못되면 핵 위기, 국제 위기에서 이러한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가 도리어 북한이 위협을 하는, 북한이 나머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단에 우리가 볼모가 될 그러한 위협이 지금 상당히 와 있다는 거지요. 그 점을 인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의 목표는 북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그것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이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 교류·협력이 그 점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제도화되고 완전히 신뢰가 구축된 단계가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판단입니다.

○김석준 위원 좋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때문에 상당히 당황들 하고 있고 특히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스스로 약화됐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 수위를 높여 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요. 외교적인 수단이 한편으로는 설득의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압박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조가 진행되고 있지요.

○김석준 위원 현재 미국이 중국과 합의하에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재 안보리 상정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 몇몇 중국의 고위층에서는 이제 안보리 상정뿐만이 아니라 안보리 심의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김석준 위원 현재 북한이 벼랑 끝까지 갔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난번 같이 군사적인 도발이나 핵 실험 이런 장난을 칠 우려는 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어려운 점은 북이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석준 위원 밝힐 수는 없지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최근의 움직임 속에서,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접촉을 통해서 추가 상황 악화 쪽으로의 방향보다는 일단은 6자를 재개하는 조건과 명분 확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일단 최악의 벼랑 끝,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응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필요하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특사를 자임하고 있는데 혹시 카터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개인 의견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만일 클린턴이 특사를 한다면, 우리 스스로 특사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또 관련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일단 6자회담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김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한나라당 김영숙 위원입니다.

북한이 2월 10일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파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우리에게 큰 우려이고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 핵이 위협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김영숙 위원 '위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대만의 핵무장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김영숙 위원 그게 동북아에 한해서만 불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역시 우리 정부도 이렇게 되면, 핵이 있는 북도 핵 질서가……

○김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라늄 등 핵 물질을 외부에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테러가 일어났지만 동북아시아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폭넓게 생각해 봐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마다 북핵에 대해서 엇갈린 소리를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 장관께서는 북핵 보유 선언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북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했고, 또 반기문 외통부장관은 북핵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핵 능력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같은데 어떻게 두 장관께서 다른 발언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왜냐하면 NSC 상임위원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 중의 하나가 북한 핵 능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김영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반기문 장관은 "핵무기 한두 개 가지고 있다" 이랬거든요.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추출한……

○김영숙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짤막하게 30초 이내로 말씀드릴게요.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한두 개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도 않았고 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10일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고수하고 6자회담을 거부할 시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요.

○김영숙 위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수합니다. 그다음에 6자회담을 거부합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생각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대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6자회담에 참석하는 나머지 5개국이 잘 협조해서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도 대통령의 뜻과 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사업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 경협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북한 핵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개성공단의 총 사업비가 2조 2000억이라고 하지만 SOC 기반 조성하고 전력이 투입되고 이럴 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이것이 또 핵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정부는 그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북핵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북핵 불용의 원칙 그리고 남북 경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건인데요.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으로 국한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런 여러 가지 금강산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통일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사업도 있지만 '금강산 체험학습' 이런 용어를 하나 더 곁들였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금강산 체험학습을 통해서 북한을 가까이 밟아 보면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이 되고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 의지가 제고되겠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자주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가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적극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체험학습'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성격을 규정해 가라는 김영숙 위원님의 말씀은, 즉각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채찍과 당근

이 병행되는 대북정책이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 정책 강화를 통해서 북한핵 폐기와 관련해서 한목소리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한이 지금 막무가내로 핵 보유를 밀고 나갈 경우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마냥 대북 지원에 쏟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를 북한 측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송영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통일부장관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NSC 상임위원장 입장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라는 것은 통일부 관할만이 아니고 국방 외교 안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대통령에게 하나의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의 총수로서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북한이 언제 NPT에 가입했는지 장관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85년입니까?

○송영선 위원 예, 85년입니다.

북한이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게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94년 제네바 어그리드 프레임워크(Geneva Agreed Framework) 때 일단 NPT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북한의 NPT 탈퇴를 국제 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다 마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송영선 위원 북한은 세 번이나 NPT 탈퇴를 공식 통고했습니다. 1993년 3월 12일, 그다음에 1994년 6월 13일, 2003년 1월 10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 해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93년 3월 12일에 처음 끄집어내니까—장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NPT 탈퇴 선언을 하고 90일이 되면 유효합니다—89일째인 6월 11일에 미국이 북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얘기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동년 5개월 후에 유엔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후인 11월 11일에 북한이 '좋다, 핵 문제 타결을 하자'라고 미국에 제의를 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94년 6월 13일에 두 번째로 하고 난 뒤에 역시 또 87일째 되는 날 베를린회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94년 10월의 베를린 합의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2년 10월 4일 강석주의 핵 보유 발언 이후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과거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003년 1월 10일 정부 성명으로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북한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하고 4개월 후인 5월 31일에 PSI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안 속는다'는 식의 전략을 끌어가고 북한은 NPT 탈퇴라는 전략을 실컷 써먹다가 안 되니까 2002년에 핵 보유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2004년 4월 북한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되돌이킬 수 없다는 CBD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머리가 썩도록 고민하시고 NSC 상임위원장으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지만 핵 문제는 2개입니다. 북한의 핵, 미국의 핵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의 수위를 동결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와 파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하지 않고 양자회담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은 당근을 주어야 된다, 그것도 특히 포괄적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핵미사일 생화학까지 다 포기하면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사고부터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없애도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이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는, 이와 같이 두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동상이몽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남북 공조와 한미 공조 사이에서 돈을 취하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취하면 돈이 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작년 7월 9일에 라이스가 와서 리비아식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비아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부터는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한계성도 있지만……

첫째, 한국이 영국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처럼

진정하게 동맹국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협조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목소리를 같이 낼 진심 어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리비아식 해결을 하도록 끈을 끄집어낸 게 영국입니다. 한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 핵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 해결을 하기 위한 진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진지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 리비아처럼 고농축 프로그램을 북한도 자진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국이 나서서 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한계를 두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꾸 '핵 불용이다'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리비아식으로 해결을 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장관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역사를 죽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NPT와 관련해서 북은 '탈퇴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제 사회는 NPT 가입국으로 있는 동안에 이행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멋대로 탈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NPT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북한의 주장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리비아가 처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리비아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선무장해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리비아식 모델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6자회담의 틀을 통한 협상 방식에 6자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정부로서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선 위원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낼 것이라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의해서 꼭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민족의 장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근 15년 20년 걸린 문제이고 역대 정권이 민족의 멍에를 풀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제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북에도 해롭고 또 남에도, 더더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 한 해를 그냥 낭비할 수 없다, 분단 60년 광복 60년의 계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 해법도 내놓고 외교적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한미 공조를 우선순위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배기선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를 해 주신 임종석 위원님!

○임종석 위원 다음부터는 앞에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문부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개성공단, 이것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북한 도와주자고 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둘 다 필요가 있고 양측 모두에게 득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종석 위원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필요성·절박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중단하면 북에 대한 압박 수단 되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으로서도 나진·선봉이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고 신의주도 실패한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의 출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개성은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중소기업의 사활적 이해도 걸려 있는 문제지요.

○임종석 위원 물론 장관님 답변하시다시피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지요. 서로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교역의 70% 이상, 중국이 밝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80% 이상,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특히 개성공단이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가적 플랜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위해서 북쪽이 개성 일원을

전부 열었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쪽의 장전항 기지가 포함되어 있는 비밀군사지역을 다 연 것이거든요. 이것이 당장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 수단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확고한 태도로 우리 정부가, 물론 통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절박성,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통한 거대한 국가적 플랜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아직도 공유가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언뜻언뜻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장관께서 미국 가셔서 뭔가 3대 경협 사업에 대해서 축소지향적인 느낌의 발언을 하신 것도 좀 옹색해 보였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전히 각 정부 부처에서 개성공단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아주 관행적인 행정조치 때문에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부장관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은 입출입·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입니다. 전략물자 문제도 있고 원산지, 기초 인프라 문제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인데, 관세청이 작년 말에 입안예고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가 눈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대북 반출입 물자 승인을 위해서 지금 관세청에 EDI 자료 전송을 하는데 이것이면 충분하지 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문제…… 또 모든 통행 차량은 서류를 첨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 간 업무협조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바로 처리되어야지 또 이것을 관세청에 이중 등록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차량 출도착 보고 시에 웬 보고를 이렇게 하고 많은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차량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 통관검사를 하는 동안에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기사들이 드나들면서 개인 공구류, 망치 드라이버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휴대물품에 신고하게 하고, 이런 것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한 달에 두 건씩 방북 취소도 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통행 계획 미준수로 외교적 마찰의 원인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통일부하고 세 번인가 조정을 했는데 아직 완전한 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류 중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저는 장관님께서 직접 관세청 법무부 이렇게 한번 만나셔서 정리를 하루빨리, 물론 실무 차관님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통일부에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빨리 이런 것을 확고하게 처리해 주는 통일부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데 장관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침 그동안 관세청과 협의해서 차량 운행만 해도 통일부와 관세청이 이중으로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었고 어제 날짜로 관세청이 그 절차를 개선하기로 통보해 와서 다음달부터는 이중절차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승인 유효기간도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으로 늘리고 부정기 운행도 한 달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확대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정부의 방침은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교통수단이 확보되면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많은 사람과 물자와 차량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의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발목 잡거나 장애물을 조성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치워 나가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미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만 더 직접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이나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달려들 일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만 해도 지체된 것이 원인이 우리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부 부처 간에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저는 장관께서 그럴 만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개성공단을 좀더 활성화하는 데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측의 협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을 천연하거나 합의사항을 수시로 약속을 뒤집는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어쨌든 북핵 문제와 병행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간접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도 '아, 이제 더 이상 북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하는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하고 또 개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씻어 주어야만 개성공단이 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의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장 배기선 임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범 위원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는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실무적인 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관광대가로 27만 2820명으로부터 1099만 달러를 벌었고 또 지난해에 14억 들여 가지고 관광도로 포장 지원사업을 우리 쪽에서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금강산관광 사업이 존경하는 임종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순한 관광사업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지 마라, 무엇을 주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현금이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간접적으로 표시해 왔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현금 유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을 때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금강산 관광은 99년 6월 서해교전 당시에도 진행되었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남북 화해·협력 사업입니다. 남북 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대·발전시켜 갈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우방국들, 관련국들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 6월인가 현대아산에서 북한에 대한 관광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결국 현대아산이 가지고 있는 온천장, 문화회관 이런 것을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900억을 빌려준 것으로, 지불한 것으로 돼 있고, 그 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빌려갔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상환 시작인데 관광공사가 과연 이 돈을 올해부터 상환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관광공사에 맡긴 것이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 자세한 내용을 직접……

○박성범 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께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로부터 직접 들으시면 더……

○박성범 위원 김윤규 사장이 상환할 것은 아니고 거기는 온천장 이런 것을 주고 정부가 900억의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결국은 돈을 지불한 또 남북협력기금에서 빌려간 관광공사가 통일부에다 남북협력기금을 상환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사실 관광공사가 저희 사업에 참여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이다 해서 900억 원을 관광공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통일부에서 협력기금을 빌려주는 이자 정도는 저희가 벌어서 갚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한테 상환조건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자를 얼마 지불하는 것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것은 좋고, 아직도 북한 측에 지불해야 될 관광 대가가 5억 2000만 달러 맞나

요?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예, 맞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불할 예정입니까?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북측에서도, 금년까지 저희가 기본합의에 9억 4000만 불을 지불하고 50년 토지이용증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이 사업이 중간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지불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박성범 위원 결국은 정부가 또 좀 도와줘야 되지요? 5억 2000만 불, 지금 밀려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인데요.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그것은 저희가 전부 벌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범 위원 그동안에도 다 정부 지원받고도 벌지를 못해서 결국 900억 관광공사 돈을 받았는데 5억 2000만 달러, 적은 돈 아닌데 이것을 무슨 수로 상환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관광공사의 900억 들어온 것은 꼭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박성범 위원 결국은 그것이지요.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현대아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유 지분 일부를 관광공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결국은 돈에 쪼들리니까 관광공사가 이것은 일종의 국가의 정책사업이니까 900억을 주고 거기 있는 건물이나 이것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요.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아니, 그때 이 사업의 유지성이 필요했고 또 관광공사는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그런 의지로 했으니까요.

○박성범 위원 그러니까 금강산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5억 2000만 불, 지금 밀린 돈이 이것인데 자력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자금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저희가 앞으로 5억 2000만 불이 지불할 게 남았고,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돼서 연 한 100만, 150만이 온다면 연간 1억~1억 5000만 불의 관광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줄 분야가 관광 대가 분야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금강산에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따르는 협력기금의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과 같이 핵 문제, 저희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 외적인 요인 때문에 관광사업이 위축되지 않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인프라, 항만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이낸싱해 주든지 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정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 얘기지요.

장관께 질의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체 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도 좋은데,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평에 맞게 무슨 대책을 안 세워 주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성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금강산 관광과 설악산 관광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설악과 금강을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내가 보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사실 내부자 거래는 엄격히 하면 아니지만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것이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쪽은 지원금 주고 한 쪽은 지원금을 안 준다면.

이 쪽도 지금 금강산 관광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주 어려우니까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 차원에서 북한의 현지 관광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은 좋겠다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결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6자회담이 열려도 다시 깨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돼 있는데 북한도 내용을 공개 안 하고 미국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안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면 6자회담안에 들어가서 그 틀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일반 핵 얘기가 거의 매듭되는 단계에서 농축 우라늄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6자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제외된 다섯 관계국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토의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어디 보니까 내놓았던데 장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최대의 장애물, 걸림돌은 HEU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6자를 복원시키는 노력입니다. 물론 6자 복원과 함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6자에 앞서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대단한 거부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성범 위원 그런데 정부 차원의 모임보다는 전문가 그룹 회의 같은 것은 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성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재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 카드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카드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풀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북한 제재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재 말씀입니까?

○권영길 위원 예, 북한에 대한 제재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중국 카드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중국 카드가 제 역할을 못 한다 하면 북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고 유엔안보리 회부 그리고 북한 제재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냉엄하게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런 얘기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표시는 장관께서도 지난번 통일외교통상위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지만 6자회담과 연계 없이 인도적 지원은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강력하게'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추진이 돼야 된다, 즉 북측이 요청한 50만t 비료 지원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실무적 협상은 필요하겠지만 6자회담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는 6자회담 해결 전에는 대규모 경협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대규모 경협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협 활성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남북 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명하게 6자회담과 연계 없이 인도적 지원은 실천하겠다,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사항은 북측에서 요청한 대로 50만t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50만t이 되지 않더라도 지난해 수준의 30만t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규모는 아니지만 경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선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통일부에서는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참고인이 참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사장 김동근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예, 김윤규 사장님!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님, 배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관님,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핵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사업 수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확실히 잘 진행돼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꼭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금강산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약 35~40만 명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강원도와 왜 연계사업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강산에 오는 관광객들은 아마도 금강산에 와서 먹고 놀자는 그런 관광이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고 또 민족이 화해·화합하는 그런 사업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쓰는 돈이 40불에서 7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쓰고 밥 먹고 그러고 갑니다마는 아무튼 그러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설악산 관광은 자연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차원에서 금강산에 앞으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통일사업과 화해·화합에 이바지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좀 완화해서 대기업들도 협력기금을 써서 거기에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성범 위원님께서 왜 관광공사 돈을 그렇게 갖느냐, 그 돈을 사실 저희 현대아산에 직접 줬더라도 저희는 그 돈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광공사를 통해서 꼭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현대나 예를 들어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가들이 협력기금을 직접 쓸 수 있게 해 주어서 관광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 통행문제는 지금 통일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자유롭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개성공단에는 이번에 전력이 공급됩니다마는 금강산에는 지금 전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3000㎾ 발전기와 500㎾, 700㎾ 이런 발전기를 가지고 그대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측의 전기를 지금 금강산관광호텔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에 열 번도 더 나가고 아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발전기를 앞으로 한 6000~9000㎾를 더 보완해야만 금년도에 이 사업이 유지되고 앞으로는 10만㎾ 송배전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부와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전사업은 한국전력이 참여를 하면 실비를 저희가 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도록 저희가 유지를 할 테니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대기업들이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 문제다 이런 긴장을 푸는 데에는 경제가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참여가 필요하고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위축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성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만 평을 내다보고, 개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측을 돕는 사업보다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선 김윤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북협력 사업은 시작하실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실 때의 의지와 그 투지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통일부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들도 경협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위가 열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1분만 통일부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좋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송영선 위원 지금 개성공단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추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자체가 미국이 테러 지원 국가군으로 분류한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북 반출물자에 우리들 자신들도 잘 모르는 미국에서 들어온 기술과 부품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략물자로 전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그렇게 수출해 준 기업들이 미국 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간주돼서 패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여태까지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모범 국가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한미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개성공단 사업에 또 다른 하나의 생각지 않은 압력 변수로 장애 변수로 작용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특별한 지침과 협력을 부탁드려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박성범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동근 이사장님과 김윤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개최하기로 했던 공청회는 저희가 3월 말쯤에 간사 위원님들과 상의 후 바로 개최해서 우리가 경협 사업을 더욱더 지원하고 요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出席委員(16人)

권영길	김석준	김영숙	류근찬
박성범	박찬숙	배기선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이은영	임종석
정문헌	정성호	주승용	최 성

○請暇委員(2人)

유기홍 엄호성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	김성원

○政府側參席者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이봉조
기획관리실장	홍양호
통일정책실장	이관세
정보분석국장	김남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사회문화국장	고경빈
남북회담사무국장	황하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其他參席者

현대아산주식회사사장	김윤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사장	김동근

【報告事項】

○通知

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통지

1월4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12월31일이었던 활동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통지가 있었음